

“건축의 본질은 삶의 질 향상” 모셰 사프디 내한강연-1

“Megascale, Order and Complexity” _ Lecture by Moshe Safdie



조인숙 | Cho, In-Souk, KIRA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간사

개요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6시 서초동 소재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는 “해비타트 67”로 이미 60년대부터 명성이 자자했고 2011년 전면 개관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복합리조트 설계로 유명한 이스라엘 출신 건축사 모셰 사프디의 내한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주관, 대한건축사협회 주최의 내한강연회는 마리나 베이 복합리조트의 건설사인 쌍용건설의 전폭적인 협찬으로 가능했다.

하필 같은 때 미국 뉴올리언즈에서의 미국건축사협회 대회(AIA Convention 2011) 참석으로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관련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및 대한건축학회 회장들은 함께 자리하지 못했으나 협찬사인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주요건설사의 CEO 및 멀리 미국 사프디 종합건축(Safdie Architects)에서 오신 건축사, 권병조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신규 APEC 등록건축사, 내외국인 건축과 교수 및 건축사를 꿈꾸는 젊은 건

축학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참석하여 350석의 대강당을 메우고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다른 나라에서의 같은 주제의 강연을 토대로 약 75분 강연으로 계획하고 60분 정도의 질의응답으로 계획했으나 좀 더 많은 청중들과의 교감을 위해 강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질의응답을 늘려서 진행했고 동시통역을 제공함으로써 강연의 생생함을 유지하도록 행사주관위원회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중간휴식 및 강연 후에도 길게 늘어선 사인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연에 이어 열띤 질의응답이 있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으로 질의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어서 제출을 했다.

그의 작품과 작품에 내재된 아이디어,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당대 건축실무에 어떻게 합치되었는지 및 그 생각들의 광범위한 적용 등 세세한 강연 내용 및 질의응답의 내용은 후속조치로 소개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연사 및 강연의 골자를 소개한다.

모셰 사프디 (Moshe Safdie,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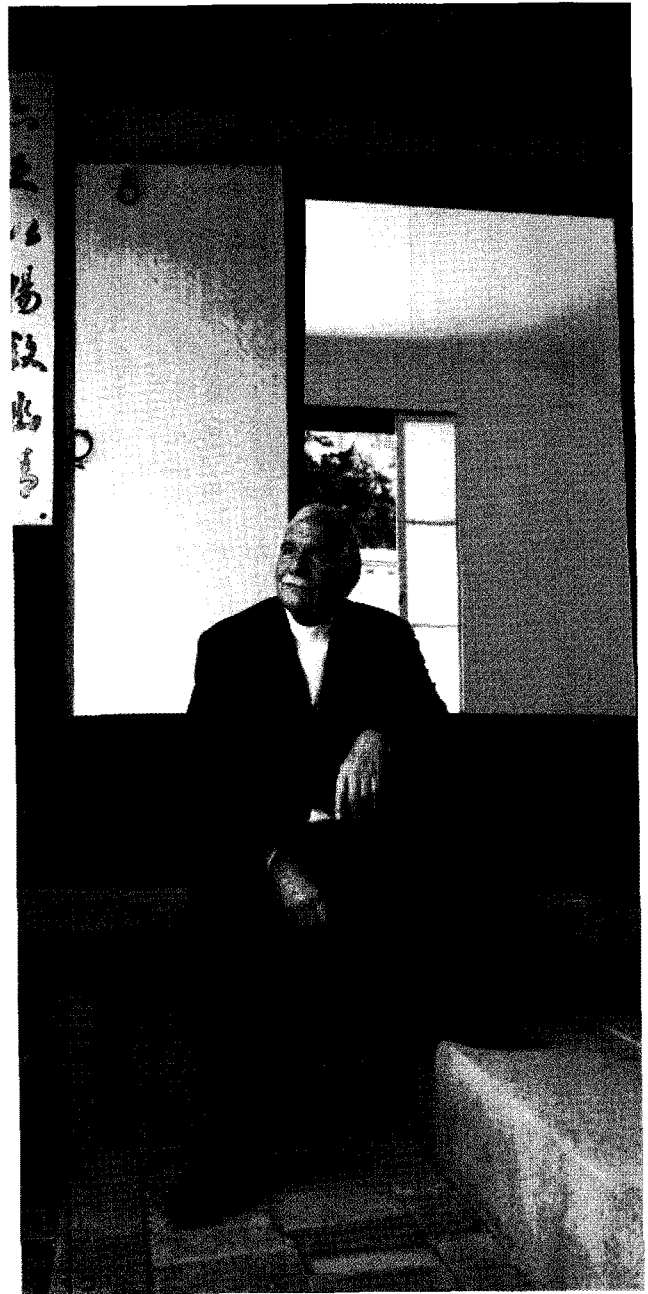
모셰 사프디는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설계 이념을 포용한 세계적인 건축사이자 계획가, 교육자, 이론가, 그리고 저술가이다. 그는 사십여 년 동안 건축, 도시 계획 및 디자인에 선각자적인 힘이 되어왔다. 그의 작품들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으며 강한 가치와 이념에 따라 끊임없는 진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사프디의 건축물은 개개의 작품마다 지역과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며 인간 본연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문화, 교육, 공공기관, 공공 공원, 복합도심개발, 공항, 신도시 개발과 현존도시 마스터플랜 및 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그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스라엘 하이파 (Haifa)에서 1938년에 태어난 사프디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는 맥길 대학 (McGill University)에서 1961년 건축 학위를 취득했다. 1964년 필라델피아에서 루이 칸 (Louis I. Kahn) 문하에서 도제 생활 마친 후, 몬트리올로 돌아와 1967년 캐나다 세계 박람회의 마스터 플랜을 감독하기 위해 사프디 종합건축사사무소 (Safdie Architects)를 창립했다. 그의 맥길대학 논문작품이었던 '해비타트 67 (Habitat 67)'은 1967년 몬트리올엑스포에서 실제 건물로서 지어지는 꿈을 이루게 되며, 20대에 창안한 이 조립식 주택 프로젝트는 67년 세계 박람회의 주요 전시테마가 되었고, 건축 역사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70년, 사프디는 예루살렘의 재건 사업에 참여를 계기로 예루살렘 지사를 설립했다. 그는 구도시의 재건과 신도시의 개발, 그리고 두 지역의 연결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았다. 그 후, 이스라엘 모던 신도시 개발 (New City of Modi'in),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라빈 기념 센터 (Rabin Memorial Center) 등으로 그의 모국에서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 그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으며, 세네갈, 이란, 싱가포르, 북부 캐나다의 북극권에서도 많은 작업을 수행했다.

1978년, 예일(Yale)대학, 맥길 (McGill)대학, 벤 구리온 (Ben Gurion)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로서의 후학양성에 힘을 쏟은 후, 1978년 보스턴으로 이주하며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그는 하버드 (Harvard University) 건축대학 도시계획과 학과장을 지내고, 1984년부터 89년까지 이안 우드너 건축 및 도시디자인 교수 (Ian Woodner Professor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를 역임했다. 이후 십 년간 그는 캐나다의 퀘벡 문명 박물관, 국립 캐나다 미술관, 밴쿠버 도서관 등 캐나다의 여섯 개의 주요 공공 기관 설계를 했다.

사프디는 지자체, 정부 기관, 대학, 민간 개발자,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건축주들과 작업을 해왔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 탐험과학센터 (Wichita Exploration Place Science



참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Center),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솔트레이크 시티 공공 도서관 (Salt Lake City Public Library), 메사추세츠주 세일럼의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Peabody Essex Museum),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킨볼 문화센터 (Skirball Cultural Center), 토론토의 레스터 피어슨 국제공항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캐나다 국립 미술관 (the National Gallery of Canada),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Yad Vashem Holocaust Museum) 등은 각 지역과 국가의 명소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다.

그의 수많은 건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저술 외에도, 사프디는 많은 도서를 집필했다. 그 중 유명한 도서로는 ‘해비타트 그 너머 (Beyond Habitat, 1970)’, ‘모든 이들에게 정원을 (For Everyone a Garden, 1974)’, ‘형태와 목적 (Form and Purpose, 1982)’, ‘예루살렘: 과거의 미래 (Jerusalem: The Future of the Past, 1989)’와 그의 어머니즘과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을 쓴 ‘승용차 이후의 도시 (The City After the Automobile, 1997)’ 등이 있다. 그의 다양한 작품들은 1996년 ‘Moshe Safdie I’으로 출판되었고,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품을 수록한 두 번째 작품집 ‘Moshe Safdie II’가 2009년에 출판되었다.

사프디는 수차례 영화에도 출연하였다. 출연작으로는 도날드 빙클러 (Donald Winkler)가 감독한 그의 자서전적 영상물 ‘Moshe Safdie, The Power of Architecture (2004)’, 나타니엘 칸 (Nathaniel Kahn)이 감독한 루이 칸과 그의 아들 나타니엘 칸의 여행에 관한 영화 ‘My Architect (2003)’ 그리고 프랑수아 지라르 (Francois Girard)가 감독한 ‘The Sound of the Carceri (prison), about Bach and Piranesi, with Yo-Yo Ma (1997)’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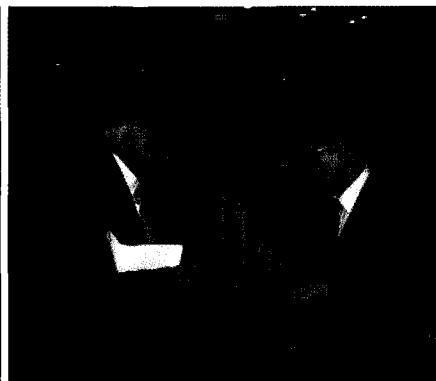
사프디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완공된 주요 프로젝트는 예루살렘 구도시의 도심 센터 마밀라 알로브 (Mamilla Alrov)와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시설 마리나 베이 샌즈 (Marina Bay Sands Integrated Resort), 인도 펀잡 (Punjab)의 시크교 국립 박물관 칼자 전통문화유산 기념관 (Khalsa Heritage Memorial Complex), 미국 워싱턴 DC 몰의 미국 평화연구소 본부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eadquarters),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국립 고고학 캠퍼스,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의 복합개발단지 웨스트 엣지 (West Edge)와 카우프만 공연예술 센터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미국 아칸소주 벤티빌의 크리스탈 브리지 박물관 (Crystal Bridges Museum of American Art) 등이 있다.

메가 스케일, 대규모건축의 복합성과 질서

모셰 사프디는 강연에 앞서 이번 생애 첫 한국방문으로 한 국제 캐나다인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모국을 꼭 가보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했다.

강연은 메가 스케일, 대규모건축의 복합성과 질서 (Megascale, Order and Complexity)라는 제목으로 188매의 보조시각자료로 구성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소주제는 도시건축의 역사적 이슈들; 해비타트; 해비타트를 다시 생각하며; 도시교통의 전환; 공공영역 설계하기; 기념 및 상징적인 건축물 등으로 나누어 1967년의 해비타트와 그 주거단지의 오늘의 모습을 필두로 최근작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2006-2009); 솔트레이크 시티 공공도서관 (1999-2003); 야드 바셈 어린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1976-1987); 칼자 전통문화유산 기념관 (1998-2009);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1997-2005) 및 미국 평화 연구소 본부 (2001-2009)등의 작품을 통해 그의 건축적 철학과 감각 들을 피력했고,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 즉 비둘기 (dove)나 조개 (shell) 나무 (tree) 및 거미줄 (spider web) 등을 통해 ‘건축설계 (design)와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감흥’, ‘기하학과 힘’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형태와 목적 (Form and Purpose, 1982)”이라는 저서의 말미에 소개했던 그의 시 “아름다움 (Beauty)”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소개하는 것은 다음 호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강연에서 언급되었던 작품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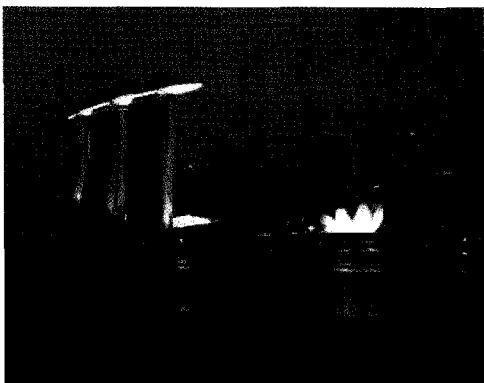


모셰 사프디와 KIRA

모셰 사프디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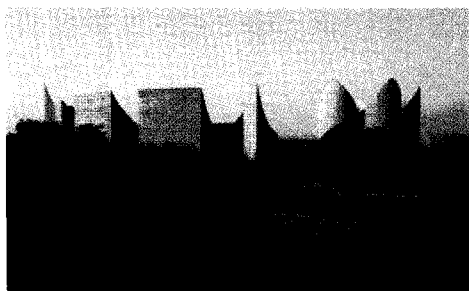
함하여 2011-2012년에 개관하는 모쉐 사프디의 다섯 개 주요 작품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한다. 행사 초청장 및 포스터에 사진으로만 소개되어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시설 마리나 베이 샌즈 (2011년 2월 전면개관)



라스베이거스 샌즈사(社)의 의뢰로 설계한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의 새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고밀도 도시구역으로, 해안에 접해 있어 활기찬 공공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복합리조트 시설은 2,560실의 호텔과 컨벤션 센터, 쇼핑 및 레스토랑, 공연장 카지노와 아트 앤 사이언스 뮤지엄 등으로 구성되어 싱가포르의 구도심과 바다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인도 편잡의 칼자 전통문화유산 기념관(2011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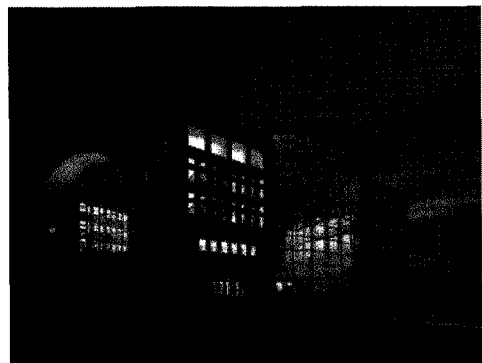


인도 편잡주(州)의 의뢰로 설계한 칼자 센터는 찬디가르 근처의 성지 아난다푸르 자이브에 위치하며 시크교 500주년을 경축하고 칼자 (현대 시크교의 창시자 고비드 싱이 쓴 글)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군(群)이다.

다섯 개 그룹으로 된 갤러리는 시크교의 5대 교의(教義)인 진리; 자비; 만족; 겸손; 사랑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 매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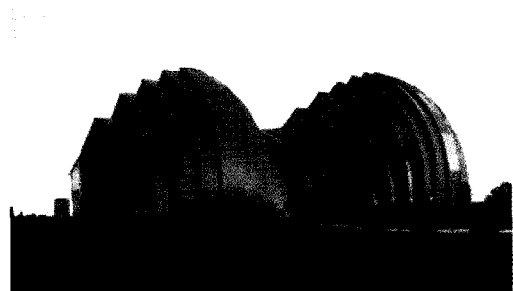
경쾌함, 깊이감과 상승 등의 상징적인 주제들은 사암(沙岩)으로 된 타워와 은색 반사지붕으로 표현되어 갤러리 내부까지 반복되어 이어진다.

미국 워싱턴 DC 몰의 미국 평화연구소 본부 (2011년 9월)



미국 평화연구소 본부의 새 동지는 2011년 9월경 개관예정이다. 이는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순화시키기 위해 의회기금으로 만든 초당적이고 독립된 기관이다. 이 1억 8천 6백만 달러짜리 시설은 민관 협력으로 이를 통해 미국 평화연구소 본부의 프로그램 및 전 미국인을 대신하여 평화구축을 촉진시키는 업무들이 팔목할 만하게 향상될 것이다. 시설은 평화조정을 주제로 하는 교육센터와 컨퍼런스 센터, 도서관과 자료실을 갖춘 연구기능 및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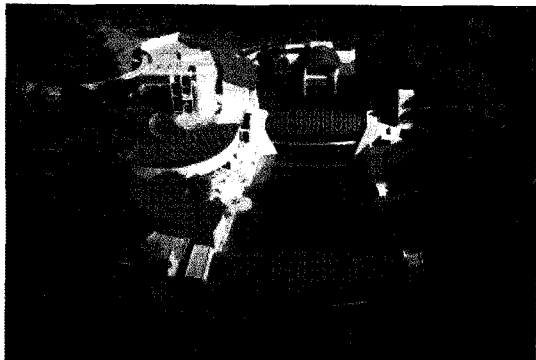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의 카우프만 공연예술 센터 (2011년 개관 예정)



3억 2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카우프만 센터는 캔사스 도시에 새로 지은 음악, 오페라, 연극 및 무용 공연장이다. 이 공연예술센터는 도시 및 지역에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관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미국 내 최첨단의 시설이 될 것이다. 이 시설을 통해 공연자 및 상주업체들은 좀 더 복잡 미묘

한 작품 등도 무대에 올리게 되고, 타 분야 간의 협력이 강화되며 청중과의 상호교감이 증진될 것이다.

미국 아칸소주 벤턴빌의 크리스탈 브리지 미국현대미술관 (2012)



크리스탈 브리지 미술관은 콜로니얼 시대부터 21세기까지의 미국작가들 걸작품을 소장하는 전시장이다. 깊은 숲 속을 흐르는 계곡을 따라 조성된 대지에 짓는 미술관과 문화센터는 예술, 건축 및 조경과 잘 어우러진다. 근방의 천연 샘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얇은 연못주위에 일련의 목조 및 콘크리트 파빌리온을 짓는다. 각 실과 갤러리는 천창을 통해 조명을 하며 밤에는 건물이 내부로부터 빛난다.

건축의 본질은 삶의 질 향상 - 모셰 사프디의 미의식 (美意識)

모셰 사프디는 강연 모두에 현대 건축제가 앓고 있는 일종의 병적인 현상인 스타건축가 (Star Architect)나 서명건축물 (Signature Architecture)과 기념비적인 건물 (Iconic building)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는 무규칙에 대해 그리고 값은 있으나 값어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의 미의식이란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그는 '건축이란 충분한 재정과 기술 및 도구나 장비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지 짓기 어려운 불가능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며, 건축이란 용도나 기능에 적합한 건물에 관한 것이며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아름다움(美)을 추구할 만한 건물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런 전제라는 것은 건



모셰 사프디 강연후 학생들에게 사인

축고유의 축조성이며 그것이 본인이 하는 건축의 중심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모셰 사프디의 이런 생각과 관련하여 낭독을 한 그의 시를 소개한다.

1982년 초판을 한 형태와 목적 (Form and Purpose)의 결론부분으로 쓴 "아름다움 (beauty)" 이라는 그의 시는 원 뜻을 해치지 않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Beauty"

He who seeks truth shall find beauty
He who seeks beauty shall find vanity

He who seeks order shall find gratification
He who seeks gratification shall be disappointed

He who considers himself as the servant of his fellow being shall find the joy of self-expression
He who seeks self-expression shall fall into the pit of Arrogance

Arrogance is incompatible with nature
Through nature,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the nature of man, we shall seek truth
If we seek truth, we shall find beauty.

-Moshe Safdie



창덕궁 후원 희우루 담 부근



창덕궁 후원 태극정

맺으며

강연에 앞서 모쉐 사프디 선생님을 모시고 당일 오전에 창덕궁의 후원 및 인근 북촌 탐방을 함께 했다.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깊게 표현 되어서인지 창덕궁 후원에 대한 감흥이 남달랐다. 창덕궁 도착 후 비가 개기 시작해서 물에 젖은 궁궐의 후원 임금님의 원유공간(苑圍空間)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창덕궁 후원의 네 종류의 영역: 부용지 권역; 애련지 권역; 반도지 권역; 옥류천 권역을 걸으면서 판타스틱을 연발하시고 특히 옥류천 영역에서는 “한국건축은 한마디로 선정적인 공간(禪定的空間, meditative space)”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셨다. 궁궐을 걸으면서 한국건축의 기본 내 외부 공간구성 단위와 각 전각을 일컫는 용어 및 한국인의 자연관과 정자건축 그리고 창덕궁을 감상하는 여

섯 개의 키워드: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조후침(前朝後寢); 구중궁궐(九重宮闕); 왕세자와 동궁(東宮); 동쪽의 대비전(大妃殿);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대해 설명 드렸더니 그 중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대해서는 하늘이 꼭 둥글다는 법이 있냐고 반문하시기도 했다.

이어서 공간사육을 잠시 들려서 북촌의 얼굴인 가회동 31번지 일대를 탐방했다.

북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질서가 없다고 표명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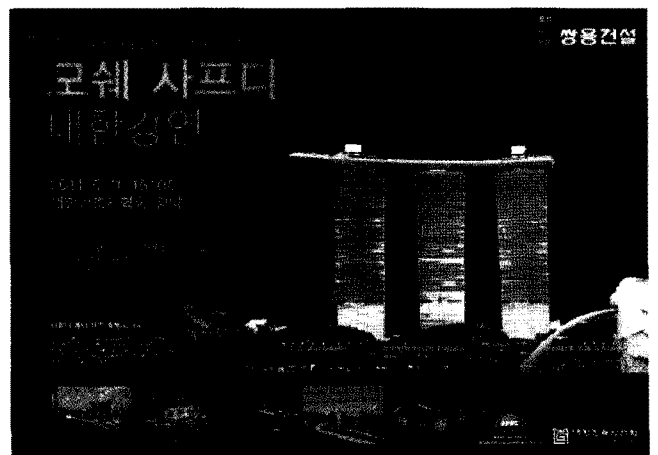
다음호에는 세세한 강연 내용과 그의 건축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참고자료

· 사프디 건축 제공 자료 및 그의 저서, 강연자료



창덕궁 금천교, 금천교 이칸 수문(二間水門)을 보며



강연 포스터